[습근평 총서기 올해 국정운영 실기]

당의 위대한 자아혁명 끝까지 진행

2023년 7월 2일, 신화사 국가고급싱크탱크는 전세계에 싱크탱크 보고서 〈중국을 개변한 '두번째 결합' — 중화민족 현대문명을 건설하는 리론 혁신과 실천〉을 발표했다. / 신화넷

습근평 총서기는 당의 령도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총서기는 큰 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하는 명석함과 확고함으로 전당을 인솔해 철저한 자아혁명정신을 발양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반부패투쟁을 종심에로 추진하는 한편 당규률 학습교양을 실속있게 전개하도록 전당을 지도함으로써 개혁의 전면 심화와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업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담보를 제공해주었다.

올해 들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시종일관 당의 령도를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전략적 대국에 올려놓고 고려하고 당이 국면을 총괄하고 각측을 조률하는 령도핵심 작용을 보장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 싶이 '두가지 확립'은 당과 인민이 모든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최대의 확실성과 최대의 뒤심, 최대의 보장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이 위대한 사회혁명을 잘 진행하려면 우리 당은 반드시 자아혁명을 과감히 진행하고 당을 가일층 확고하고 유력하게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시시각각 큰 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하는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하고 과감히 자아혁명을 진행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한시각도 멈추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부패를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습근평 총서기는 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자아혁명을 깊이 추진하고 반부패투쟁의 공략전과 지구전을 단호히 승리에로 이끌며 반부패투쟁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이를 종심에로 추진하는 데 대해 전략적 포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25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 감독점검과 심사조사 상황을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규률검사와 감찰기관은 총 40만 5,000건을 립건하고 33만 2,000명을 처벌했다. 그중 성부급 간부 41명에 대해 립건조사를 진행하고 성부급 간부 25명을 처벌했다. 일련의 수치는 당풍청렴 건설과 반부패투쟁을 한시각도 늦추지 않고 진행하려는 우리 당의 명확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구현했다.

올해 '7.1' 전야에 중공중앙 정치국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히 할 데 대해 제15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학습을 주재할 때 새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를 관철 실시하고 요소가 구전하고 기능이 완비되며 과학적이고 규범화되고 고효률적으로 운행되는 전면적인 당의 업무관리 체계를 가일층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은 특별히 한 부분을 할애해 당의 령도와 당건설 제도 개혁을 포치했다. 일련의 중대한 개혁 조치는 항구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려는 확고함과 명석함을 충분히 구현해주었다.

올해 들어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건설을 틀어쥐는 데서 과학적 리론이 있고 개혁 포치가 있었으며 실제 행동도 있었다.

올해 1월에 개최된 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포치를 내려 새로 개정한 규률처분조례 학습 관철을 계기로 전당에서 한차례 집중적인 규률교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당건설의 중점 과업으로 4월부터 7월 사이 당규률 학습교양은 전당적으로 실속있게 전개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를 깊이 중시하고 전 과정을 지도했으며 당규률 학습교양을 부단히 심화했다. 중앙당학교 당건설교연부 교수 리준위는 습근평 총서기는 당의 령도가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 방향, 전도와 운명, 최종 성패와 직접적으로 관계됨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습근평 총서기는 시종일관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건설을 틀어쥐며 철저한 자아혁명정신을 발양하고 영원히 진격의 나팔소리를 울리도록 우리 당을 인솔하고 엄한 기조, 엄한 조치, 엄한 분위기를 장기간 견지하여 당의 위대한 자아혁명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히 진행형이고 당의 자아혁명도 영원히 진행형이다. 당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 당의 자아혁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사상을 근본 지침으로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터득하고 당의 자아혁명, 자아완비, 자아혁신, 자아제고를 부단히 추진한다면 우리는 필연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새 로정에서 더욱 화려한 장을 수놓을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인민방송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요점 편람 (2)

◇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시장 기제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활력이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 배치 효률의 최적화와 효익의 극대화를 실현해 '권리 이양 활성화'와 '관리 효과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시장 질서를 보다 더 잘 수호하고 시장 부실을 보강하며 국민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보장하고 전사회의 내생동력과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관철한다.

◆ 전국 통일 대시장을 건설한다.

◆ 시장경제 기초 제도를 완비한다.

◇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체제기제 보완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선차적 과업이다. 반드시 새 발전 리념으로 개혁을 인솔하고 새 발전단계에 립각해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격려구속 기제를 보완해 발전의 새 원동력과 새 우세를 육성해야 한다.

◆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 체제기제를 보완한다.

◆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심층 융합 제도를 보완한다.

◆ 봉사업 발전 체제기제를 보완한다.

◆ 현대화 기반시설 건설 체제기제를 보완한다.

◆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근성과 안전 수준 제고 제도를 보완한다.

◇ 전면적 혁신 지원 체제와 기제 구축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이자 전략적 버팀목이다.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인재강국전략, 혁신주도발전전략을 반드시 깊이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와 기제의 일체화 개혁을 총괄 추진하며 신형의 거국 체제를 완비화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한다.

◆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인재 발전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한다.

◇ 거시적 경제관리 시스템 건전히

과학적인 거시적 조절통제, 효과적인 정부 관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우세를 발휘하는 내적 요구이다. 반드시 거시적 조절통제 제도 시스템을 완비화하고 재무와 세수, 금융 등 중점 분야 개혁을 일괄 추진하며 거시적 정책 취향의 일치성을 증강해야 한다.

◆ 국가전략계획 시스템과 정책 일괄 조률 기제를 완비화한다.

◆ 재무세수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금융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구역 조률 발전 전략 기제 실시를 완비화한다.

◇ 도농 융합 발전 체제기제 완비화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신형의 공업화와 신형의 도시화, 향촌 전면 진흥을 총괄하고 도시 농촌 기획, 건설, 관리의 융합 수준을 전면 제고하며 도시 농촌 요소들의 평등한 교환, 량방향 류동을 촉진하고 도시 농촌 격차를 줄이며 도시 농촌의 공동 번영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 건전한 신형의 도시화 체제기제를 추진한다.

◆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화하고 완비화한다.

◆ 강농혜농부농 지원 제도를 완비화한다.

◆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 고수준의 대외개방 체제 보완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징표이다.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반드시 견지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며 우리 나라 최대 규모 시장의 우세에 의존해 국제협력에서의 개방 능력을 제고하고 고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 대외무역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외투자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구역 개방 구도를 최적화한다.

◆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기제를 완비화한다.

◇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 체계 완비화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이다.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정치 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가고 우리 나라의 근본 정치제도, 기본 정치제도, 중요한 정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해야 한다. 각 급별의 민주 형식을 풍부히 하고 인민의 나라의 주인공적 지위가 국가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제 분야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

◆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 건설을 강화한다.

◆ 협상민주 기제를 건전히 한다.

◆ 기층 민주제도를 건전히 한다.

◆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완비화한다.

◇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 보완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헌법을 전면 관철하고 실시하며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립법, 집법, 사법, 준법의 제반 고리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도록 보장하는 기제를 건전히 하고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고양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 제 분야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

◆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한다.

◆ 법에 따른 행정을 깊이있게 추진한다.

◆ 공정한 집법과 사법 체제기제를 건전히 한다.

◆ 법치사회 건설 추진 기제를 보완한다.

◆ 섭외 법치 건설을 강화한다.

/ 중앙인민방송

〈전면 개혁 심화를 통한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중대한 성과와 세계 공헌〉 발표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리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6일 중국공산당력사전람관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중앙당사·문헌연구원 국가고급싱크탱크와 신화통신 국가고급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작성한 싱크탱크 보고서 〈전면 개혁 심화를 통한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중대한 성과와 세계 공헌〉을 중문과 영문으로 전세계에 발표했다. / 신화넷

IMF 중국 담당 책임자 :

중국, 더욱 수준 높은 경제성장 이룰 것

중국이 지속적인 개혁 추진에 힘입어 더욱 강하고 수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가 말했다.

5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제4조항 협상'을 진행한 IMF 중국 담당 책임자 소날리 잰 찬드라는 최근 이같이 전했다. 2일 IMF 집행리사회는 검토·승인을 통해 〈2024년 중국에 대한 제4조항 협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4조항 협상'은 IMF가 회원국의 경제 성과와 거시정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판단 및 평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다.

그는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경제가 경기를 회복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중국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강력한 공공투자와 민간소비의 꾸준한 회복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찬드라는 지난 수십년간 중국은 시장화 개혁, 무역자유화 및 글로벌 공급사슬 융합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절대 빈곤퇴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지표의 뚜렷한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찬드라는 중국이 무역과 투자를 한층 개방하고 중점 분야의 거시 리스크(风险) 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MF는 이러한 중국의 개혁이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신화넷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로 신와르 임명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 수장인 야히야 신와르(가운데)가 지난 2022년 12월 14일 가자지구에서 열린 하마스 창설 35주년 기념 대규모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신화넷

얼마전 암살당한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를 팔레스타인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 정치국 지도자로 임명한다고 하마스가 6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61세인 신와르는 하마스 산하 안보기관의 주요 창설자로서 2017년부터 가자지구의 하마스 수장을 맡아왔다. 이스라엘은 그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계획한 주동자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신와르는 1988년 2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살해한 혐의로 이스라엘에 의해 20여년간 수감됐다가 2011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포로 교환 협의에 따라 풀려났다.

7월 31일, 하마스는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 하니예가 이날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 신화넷

조속히 레바논 떠나라… 유럽 각국, 자국민에 대피령

최근 유럽 여러 국가들이 자국민에 조속히 레바논을 떠나도록 요청하고 있다.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에서 충돌이 고조되고 레바논의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다. 일부 국가는 교민 철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행 왕복 항공편을 취소하는 유럽 항공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는 4일 자국민에 레바논과 프랑스를 오가는 상업 항공편을 리용해 레바논을 떠날 것을 요청했다. 독일 외교부도 얼마전 조속히 레바논을 떠날 것을 긴급히 호소했다. 현재 레바논에 체류중인 프랑스인과 독일인은 각각 2만명, 2천명가량으로 전해졌다.

북유럽 국가들도 대피령을 발령하고 있다.

노르웨이 외교부장 에이데는 5일 노르웨이 국민에 레바논을 즉시 떠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웨리예정부는 레바논 주재 대사관을 림시 폐쇄하고 직원은 끼쁘로스로 떠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핀란드 외교부도 레바논에 머무는 핀란드인들에 조속히 레바논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려행 금지령'도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뽈스까 외교부는 자국민에 레바논, 이스라엘, 이란 려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스위스, 화란, 크로아찌아, 체스꼬 등 국가들도 가능한 한 빨리 레바논을 빠져나올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바이루트를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는 유럽 항공사들도 늘고 있다. 프랑스 항공회사와 뽈스까 항공회사는 바이루트 왕복 항공편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로므니아 항공회사는 로므니아발 이스라엘 텔아비브, 요르단 수도 암만, 바이루트행 항공편을 취소했다.

/ 신화넷